

JENESYS 2017 홋카이도·한국 지역유산 발굴·발신 교류사업



JENESYS2017은 아시아 대양주 각국, 지역 간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홋카이도와 우호 협정을 맺고 있는 4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년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 방일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홋카이도에 머물며 홋카이도 유산 방문을 통해 홋카이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그 매력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신했습니다.



11월 22일에 홋카이도에 도착한 방문단은 홋카이도청을 방문해 쓰지 부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쓰지 부지사와 단장을 맡은 외교부 배 심의관은 대학생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이후 한일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방 후에는 문 교류원의 홋카이도 개요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유산 돌아보기



홋카이도 유산은 홋카이도와 관련된 자연, 문화, 산업 등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 주고 싶은 것으로 선정된 유형, 무형 재산으로 현재 52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에베쓰시 세라믹 아트센터(에베쓰 벽돌), 시라오이 아이누 민족 박물관, 니부타니 아이누 문화 박물관(아이누 문양 등), 노보리베쓰 온천 지옥계곡, 삿포로 나에보 지구 공장 등 여러 홋카이도 유산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홋카이도의 선주 민족으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소중히 전해져 온 아이누어 지명, 아이누 문양, 아이누 구승문예 또한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4일에는 시라오이의 아이누 민족 박물관을 방문해 아이누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 요리를 시식했습니다.



29일 방문한 니부타니 아이누 문화 박물관에서는 아이누 무용을 체험하고 아이누 문양의 컵받침을 만들었습니다.

27일에는 삿포로대학의 우레시파 클럽 학생들과 아이누 무용을 체험하고 아이누 악기인 '뭇크리'를 연주하는 등 교류를 했습니다.



~JENESYS 참가 학생들의 한마디~

선희: 홋카이도유산에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줘서 잘 알 수 있었다. 평범한 관광이 아닌 홋카이도에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곳들에 오게 될 수 있어서 좋았다.

동현: 홋카이도의 눈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다.

민석: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역시 배우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른 것 같다.

정현: 아이누 문화가 인상 깊었다. 특히 아이누 민족 후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

한국 부산 DAY & 강원도 소개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부산 DAY & 강원도 소개전을 열었습니다. 홋카이도청 1층 도정 홍보 코너에서 부산과 강원도의 멋진 풍경과 2018년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의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팸플릿을 배부했습니다.

2017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홋카이도에서도 4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은 4가지 소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참가했습니다.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에 다녀와서~

<카토 소우>

계속 일본에서 살았던 내가 다른 환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여러 국적,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컬처나이트에서는 노래, 언어, 춤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도 일본의 좋은 점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미우라 켄타로>

한국도 제주도도 처음이었는데 경치,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룸메이트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잘해서 놀랐다.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친해졌고 이번 제주 포럼을 통해 여러 나라의 친구가 생겼다. 포럼에 참가한 좋은 경험을 앞으로도 살려 나가고 싶다.



<사쿠라이 료나>

다들 영어를 잘해서 나도 좀 더 영어를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룸메이트인 한국인 친구가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긴장도 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제주도에 가고 싶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